

한글 세벌체의 우수성 표현

한 재 준
대우공업전문대학

Representation of Excellency on Hangeul Seabul type

Han Jae Joon
Dae Yeu Technical Junjor College

요약

이 글은 요즘들어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 탈네모틀 글자의 하나인 세벌체의 출현배경을 밝히고, 세벌체의 우수성과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글의 작성방법도 필자가 직접 개발한 세벌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였다.

I. 머리말

글자는 의사전달용 시각기호의 발전단계이며, 시각기호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은 의사전달 기능의 극대화에 있다. 인간은 글자의 발명 이후에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시각 전달매체들을 창조해내었으며, 이러한 발명은 글자꼴의 진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오늘날의 한글꼴만 보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540여년 전, 중국과 한자의 영향권 속에서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형태로 창제되어진 한글꼴은 산업혁명이후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글자생산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난관을 겪어왔다. 한글의 기계화가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라고 믿어왔던 한글을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한글의 구조적 형태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절감했던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기계화의 문제로 인한 풀어쓰기 운동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있다. 이제 또다시 불합리한 한글의 기계화를 거쳐, 전산화 과정에 서있는 우리는 그동안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던 어려운 숙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게 되었다. 한글꼴은 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글꼴 즉, 전통적 방식의 한글꼴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대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전통을 지키자는

허울로 가리키에는, 그 물결이 너무나 거세고도 도도하다. 밀려오는 미래의 거센 파도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글꼴은 바뀌어야 한다. 한글꼴을 로마자나 한자의 논리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 한글이 살기 위해서는 한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로마자나 한자는 그림기호가 단순화, 양식화 되면서 오랜 세월동안 발전되어 이루어진 글자이다. 거기에 반해서 한글은 소리를 추상적 형태로 발전시킨 독특한 발생과정을 가진다. 이렇게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른 한글을 그동안 뜻글자의 대표가 되는 한자의 틀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자의 틀에서 한글을 해방시켜야 한다. 한글이 살아야 민족의 힘이 뭉쳐질 것이며, 민족의 힘이 뭉쳐져야 미래사회에 대처해나갈 힘이 생긴다. 한글은 네모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최소의 자소로 된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한글의 특성을 살리는데에 꼭 필요한 요소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글자꼴이 바로 이 글이 주장하는 '세벌체'이다.

II. 세벌체의 개념 및 출현배경

세벌체란 닿소리글자, 홀소리글자, 반침글자가 각각 한가지의 형태로 조합되어 사용되어지는 글자꼴을 말한다. 따라서 탈네모틀 글자라 하더라도 닿자, 홀자, 반침 등이 각각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을 때에는 세벌체라 할 수 없다. 세벌체는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글자의 구조와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 시킨 결과물이다. 탈네모틀 글자라고 다 세벌체가 아니다. 탈네모틀 글자와 세벌체는 출발에서부터 그 근본이 다르다. 탈네모틀 글자가 간소화된 글자꼴이라면 세벌체는 최적화된 글자꼴이다. 그림 1, 2 와 같은 글자꼴들은 탈네모틀 글자이지만 세벌체와는 글자 구성방법이 다르다.

남북 한글자판 통일은 다른 어느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시급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진짜 전문가들이 오로지 거메의 문자생활 편의만을 염원하면서 사심없이 나서야 하는데, 이것이 걱정됩니다. 얼치기 전문가들이 몇차례씩이나 일을 망쳐 놓았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조상과 후손만대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중죄인이 될 것입니다. 얼치기 전문가도, 이들의 우행을 앉아서 가만히 본 모든 사람들도, 다함께 죄를 짓는 것

글은 말을 보이게하는 것이요, 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말로 이를 나타내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전말의 단위인 낱말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고도 무제한적인 팽창은 짐이 될 수밖에

그림 1) 반침 '리'와 닿자 '기'가 각각 2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2.) 닿자 '이'가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세벌체라는 개념은 당자 1벌, 홀자 1벌, 받침 1벌로 글자가 찍혀 나오는 3벌식 수동 타자기의 글자판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3벌식 타자기란, 한글의 구성원리에 충실한 구조로 글자판에 당자, 홀자, 받침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며, 각 글자판은 각각의 글쇠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글자판을 손가락으로 두들기면 글자판과 연결된 글쇠가 각각의 글자꼴을 찍어주는 원리의 글자생산기계이다. 이러한 원리로 찍혀나온 글씨모양을 이름붙여 ‘빨래줄 글씨’ 또는 ‘공체’ 등으로 통용하여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타자기뿐만 아니고 컴퓨터나 여러가지 인쇄용글씨에서도 같은 원리의 글자꼴들이 개발되어 각각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류의 편의상 글자생산과정과는 관계없이 같은 구조의 모든 글자꼴들을 ‘세벌체’라 정의하기로 한다.

최초의 세벌체는 1950년에 일반에게 보급된 공병우 타자기의 글씨꼴에서 나타난다. (그림 3. 참조) “펜 대신 쓰는 타자기의 생명은 글자 모양보다도 속도에 있다는 생각에서 세벌식 타자기와 세벌 글씨체가 개발되었다.” 는 공병우 박사의 고백을 보아도 세벌체의 출현은 속도가 빠른 타자기를 생산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을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글씨꼴이 변화된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항상 단순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은 세벌식 타자기를 미국 "언더우드" 회사에서 최초로 만든 기계로 친 것을 다시 복사한 것입니다.
타자기는 글자를 펜으로 쓰는 것보다도 빠르고 깨끗하게 치는 기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벌식 타자기와 세벌 글씨체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림 3) 최초의 공병우 세벌체

이후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이론상으로 체계화시킨 연구논문(조영제, 1976)이 발표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여러 관련저서, 연구논문, 글꼴제작, 실용화 운동 등이 이어져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글자꼴로 자리잡고 있다.

III. 세벌체의 우수성

세벌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빠른 속도의 기계를 만들기 위한 동기에 그친 결과물도 아니다. 세벌체는 이제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세벌체 출현의 의미는 또다른 시각에서 분석되어야하며 그에대한 가치가 제대로 알려져야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올바른 평가는 새로운 창조에 못지않은 훌륭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한 의미와 시각에서 세벌체의 우수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1. 한글의 특성이 잘 살아있다.

가. 소리글자

“글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나눌 때, 한글은 소리글자이다. 이 점이 한글의 특질의 하나이다. 한글은 소리글자 중에서도 음소가 하나하나 쉽게 구별되는 음소글자이면서도 음운이 하나하나 쉽게 구별되는 음운글자이다. 즉, 자소 하나를 독립해서 적을 수 있는 점에서는 음소글자이고, 독립된 음소들이 모여져서 한 음절을 이루는 점에서는 음절 글자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히 음성입력 방식의 기계를 개발하는데 대단히 편리한 장점이 된다.”¹⁾

한글은 본래가 그림으로 부터 출발한 한자나 로마자와는 다르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추상적인 기호형태로 발전시킨 글자이다. 따라서 한 가지의 서체에서 ‘ㄱ’이라는 형태가 여러가지로 바뀌면서 사용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글자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한글 글자꼴은 위와 같은 한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한자형 한글꼴’ 또는 ‘뜻글자형 한글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반면에 세벌체는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글자꼴이다. 한 가지 서체에는 반드시 한 소리 한 글자의 원칙이 지켜지며, 어떤 글자꼴과 조합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나. 모아쓰기

한글은 당자와 흘자를 풀어서 쓰는 풀어쓰기 글자가 아니고, 당자와 흘자, 경우에 따라서는 당자와 흘자와 받침을 모아서 쓰는 모아쓰기 글자이다. 세벌체는 시각적으로도 이러한 한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 수학적 출현 순서

한글은 항상 당자, 흘자, 받침 또는 당자, 흘자의 순서로 출현된다. 세벌체는 이러한 원리의 특성에 알맞게 첫당자를 기준선으로하여 줄거리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의 특성을 잘 살렸기 때문에 더욱 개성있는 글자꼴이 된 좋은 예가 된다.

1) 송현, “한글자형학”, 46-47쪽, 디자인하우스, 1985.

2. 창조성을 살려준다.

지금 막 한글공부를 시작한 어린이들의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네모틀을 벗어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그림.4 참조) 이렇게 한창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네모틀을 강요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을 죽여왔던 것이다. 한글꼴을 네모틀에 가두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글자는 의사전달을 위한 시각기호의 발전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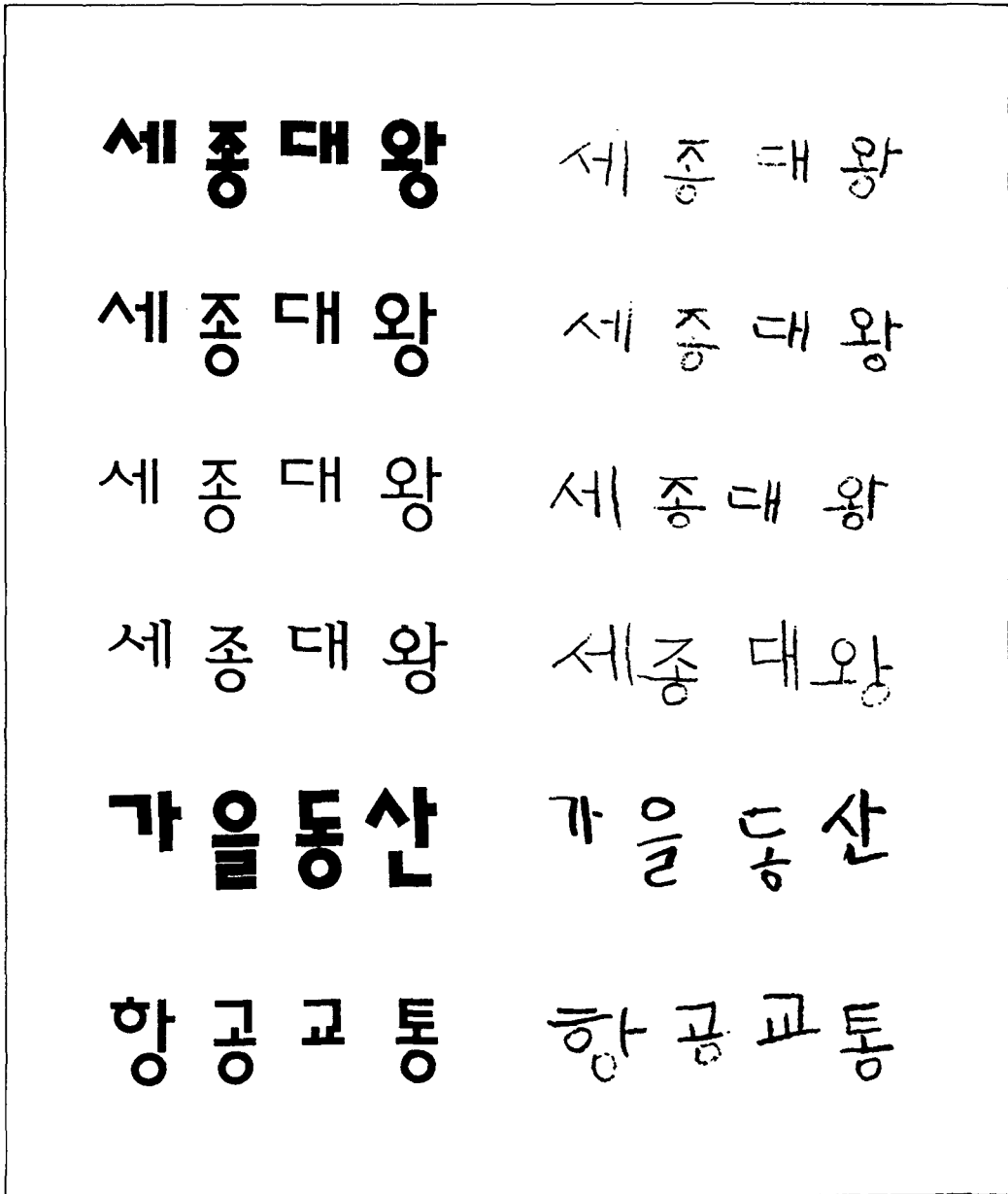


그림 4) 세벌체와 6명의 어린이의 글씨를 비교해 본 그림

이상적인 글자꼴이란 이상적인 시각기호의 기본조건에 알맞아야 한다. 이상적인 시각기호의 대표적인 조건은 전달기능에 있다. 따라서 전달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글자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획일화된 사회 구조속에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시각 문화의 대표가 되는 글자꼴이 같으면 정신도 같히게 된다. 정신은 열려 있어야 한다. 정신이 열려야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발전적인 생각과 실천이 많아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세벌체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3. 한글자량과 한글교육에 효과적이다.

“글자 구성 체계가 복잡한 네모 글씨꼴은 한글 구성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지만, 3벌체는 한글 구성원리가 초성, 중성, 종성 등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과학적인 글자라는 한글 구성 원리를 가르치는데 훌륭한 교육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²⁾

세벌체의 단순성과 체계성은 이러한 한글 교육에도 효과적일 것이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 한글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어려운 방법의 한글 공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글 쓰기 교육의 기본 목적은 글자를 잘 익히도록 하고, 잘 알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쓰도록 하기일 것이다. 글자 익히기 교육이 서예 교육으로 탈바꿈 되어서는 곤란하다. 도덕과 예절과 예술성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빨리 전할 수 있는 형태의 글씨꼴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시력보호에 효과적이며, 생리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

전통형 한글꼴에 비해 단순하고, 공간 배분이 훌륭하며 합리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독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력도 보호하고 피로도를 낮게 한다.

5. 기계화에 적합하다.

세벌체는 한글의 수학적 특성인 글자의 줄현순서를 잘 살린 글자이다. 또한, 60여 자소 이내로 11,172자를 조합해 낼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전산화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컴퓨터가 읽어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여 한글의 전산화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글씨꼴이다.

2) 공병우, “획기적인 3벌체 전자 활자(폰트)개발”, 유인물, 1992.

6. 글자꼴 개발이 활발해진다.

구조의 단순화는 제작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며 이러한 장점은 누구나 글꼴 개발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세벌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7. 경제적이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다. 글자꼴 개발이나 사용 등에서 값이 싸지게 되어 출판 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가지의 글자꼴이 중심이 되는 상품(한글 판박이 글자 등)의 개발비도 덜 들게 되어 한글꼴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이다.

8. 가독성이 높다.

간결 단순한 구조와 울퉁 불퉁한 개성있는 형태는 가독성과 판독성을 높여준다. 익숙해진 습관으로 인한 가독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미 판독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반화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 글자꼴의 산업화에 뛰어나다.

가공처리 과정이 단순하여 대량생산이 손쉬워지며, 판박이 글자 등 즉석용 글자 상품의 개발 가능성이 많아진다.

10. 시각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세벌체의 여러가지 장점은 거리의 간판은 물론, 각종 인쇄매체, 영상매체들의 글자꼴들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나라의 시각문화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글자꼴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감정 표현이 정확하고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대중은 항상 선택의 특권을 누려왔다. 훌륭한 글자꼴에는 생명을 주었으며, 그렇지 못한 글자꼴은 가차없이 소멸시켰다. 대중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글자꼴은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한글꼴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의 한글꼴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보인 시기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한글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세벌체'이다.

세벌체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글자꼴이 되었다. 세벌체의 꽃이 온 천지 사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벌체를 장식글자나 디자인체니 하면서 일시적인 유행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벌체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벌체는 단순히 네모틀을 벗어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각적 차별화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세벌체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한글꼴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간혹 이러한 세벌체를 전통적인 한글꼴에 익숙해진 미적 감각으로 비교 평가하는 예가 있는데 세벌체는 현재의 시각적인 결과물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미래형 글자꼴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세벌체로 작성되었다. 글자꼴 문제는 이론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 실린 글자꼴들이 세벌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에 훌륭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이용 책이나, 정보처리용 컴퓨터 글자꼴에서만이라도 하루빨리 세벌체를 도입하여야 한다. 비합리적인 낡은 사고는 가능한한 빨리 벗어 버리고 합리적인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옳고, 바른 것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세벌체의 적극적인 활용은 미래의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며, 시간은 세벌체에 삶과 근육을 붙여주고 다양하고 멋진 옷들을 입힐 것이다.

참고문헌

1. 공병우, "획기적인 3벌체 전자 활자(폰트)개발"외 여러 유인물, 1989~1992.
2. 김진평,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산업디자인 112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3. 석금호,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 112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4. 송현, "한글자형학", 디자인하우스, 1985.
5. 안상수, "탈네모틀 한글꼴의 시도와 한글 글자꼴의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안, 산업디자인 112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6. 조영제, "한글기계화(타자기)를 위한 구조의 연구", 조형 창간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
7. 한재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한글 디자인 연구", 대우공전 논문집 제 11집, 대우공전, 1989.
8. 한재준, "줄거리용 한글꼴의 나아갈 방향", 한글새소식 제 227호, 한글학회, 1991.
9. 한재준, "한글꼴의 다양화를 위한 글자구조 연구, 대우공전 논문집 제 13집, 대우공전, 1991.